



△스님과 목사, 신부, 교무 등 4개 종교 축구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기 종교 중심의 이기심 넘어서 하나된 모습
“스님, 살살하세요.” 웃음섞인 말들로 서로 격려
어느팀 우승 중요치않아, 모인 사실만으로 기뻐



◇교교시절 절친한 친구인 종선스님(우측 두번째)과 김동규 신부(우측 세번째)가 손을 맞잡고 있다.

**25년만에 재회, 우정 친선경기로 이어져
서로 다른 삶 방식 이해, 다양한 교류 기대**

“어, 동규(신부)야!”
“어? 재철(종선스님)야!”
2000년 초파일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8개 교단 대표들이 통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이 만났다. 25년만에 한 사람은 성공회 신부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은 스님이 되어 만난 두 사람의 우정은 두 종교간의 이해로 이어졌고, 종교인 친선 경기대회라는 큰 열매의 씨앗이 되었다.
종교인 친선 축구대회 집행위원장 종선스님은 “김동규 신부를 만나면서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세상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찾아낸 종교화합의 불교는 축구,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맺어준 송영웅 목사, 장덕훈 교무를 집행위원으로 4개 종파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집행위원들은 올 가을에는 성직자들만의 축구경기를 갖고 매년 6월에는 대규모 축구대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기로 했다.
김동규 신부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보다 다양한 교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천주교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됨’ 일깨우는 희망의 슛! 골~인!

스님, 목사, 신부, 교무 종교인 친선 축구대회

“스님, 파이팅!”
“목사님, 힘내세요!”
10일, 울산 남구 월드컵 문수 축구경기장에는 스님과 목사, 신부, 교무 등 4개 종교 성직자들이 축구경기를 가졌다. 불교, 개신교, 성공회, 원불교의 성직자들이 팀을 만들어 출전한 한국 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축구대회였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울산 월드컵 문수경기장에 모인 각 종교 성직자들은 자기 종교 중심의 이기심과 배타적 분위기를 넘어 축구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먼저 신부팀과 교무팀 경기를 시작으로 각 경기는 풀리먼트로 진행됐다. 경기가 없는 스님과 목사, 수녀, 보살, 정녀들은 관중석에 나란히 앉아 응원을 펼쳤다.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난 후 후반전에서 교무팀의 공격이 활기를 띠자 응원의 열기도 더해졌다.
슛! 골~인!
드디어 한 골이 터졌다. 종교의 벽을 허물며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놓은 득점은 교무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원광대 선후배로 구성된 교무팀은 단 한번의 연습도 없었지만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양산 분도수녀원 한마르타 수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으며 하나임을 알아가고 한발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며 “여성 성직자들도 탁구라도 하면 좋겠죠?”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열린 스님팀과 목사팀의 경기. 제일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한 스님팀은 목사팀을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종료 후 짧은 휴식시간. “스님, 좀 살살하세요.” “목사님은 축구 선수보다 잘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섞인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축구경기에서 스님팀은 목사팀, 교무팀, 신부팀을 차례로 이겨 전승을 기록했다.
응원하던 김인숙 불재(울산신시 남궁)는 “감격스럽다. 어느 팀이 우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경기를 관람한 사람도, 직접 경기에 뛰었던 사람도 “이번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누구나 소리 높여 종교화합을 외쳤지만 대립과 반목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기에 이날 축구 대회가 주는 감동은 더욱 컸다.
스님, 목사, 신부, 교무가 한자리에 모인 축구 대회이고 보니, 수녀와 비구니 스님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응원을 보내는가 하면, 응원을 통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과 목사, 신

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다. 경기장 한쪽에는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울산불교교육원 소속 석정원(차)가 녹차와 다식, 떡, 수박 등을 준비해 전통 문화의 맛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참석한 선수 중 최고령이었던 인천 성지교회 안병성 담임목사(62)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들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 많은 종교인들과 북한종교지도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자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대구 성공회 서대구교회 천재욱 신부는 “종교간에 서로 적대적인 경우도 없지 않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몸으로 부딪히며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털어놓았다.
부산, 경남은 물론 대구 서울 인천 등지에서 먼길 마다 않고 경기를 위해 달려온 성직자들. 사전 연습은 없었지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칠 줄 모르고 뛰고 또 뛰었다. 울산시 불교사원연합회(회장 놀암)와 울산 불보신문이 마련한 평화통일기원 제1회 종교인 연합 친선축구대회, 축구 경기에 앞서 가진 식전행사에 참석한 각 종교계 원로들 또한 이날의 축구대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성공회 부산교구장 이대웅 주교,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상임 고문 정영문 목사, 원불교 부산 대신교당 황도국 교무 등 각 종파의 어른들이 참석한 식전행사에서 행사를 주관한 놀암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종교인들의 화합된 모습은 나와 이웃을 하나로 묶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주교 또한 “오늘 이 경기에 참석한 모든 종교인들이 누가 누구를 이겼다고 기억하기 보다 사랑을 배웠다고 기억하게 되길 기도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종교화합을 강조하는 어떤 학술대회나 세미나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은 1회 종교인 연합 친선 축구대회는 대회 자체가 종교간의 벽을 허문 멋진 골든 골이었다. 승부를 넘어 똑 같은 승리의 트로피를 받아낸 종교인들은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글= 천미희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야 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났으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